괭이질하는 자세로

친애하는회원여러분

지난1월18일총회에서회장으로선출된후2월28일전임회장으로업무인수를받고3월1일부터본격적인우리회의업무를개시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지난2005년한해는어느해보다분주하게보냈던것같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대회를비롯하여각종정책세미나및강습회등으로많은회원과임원들의노고와활동이두드러진해였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노력이헛되지않고더욱빛을발하는우리회가되도록하여야겠다는것이저의각오입니다.

제가회장으로써추진하고자하는큰줄거리를말씀드리면,

첫째, 관계법령개정을위한새로운전략수립입니다.

그간우리회가추구한제도개선노력은소수의인력과다소체계적이지못한상태에서진행되다보니우리와반대이익을갖고있는사람들을설득하지못하고오히려역공을받는상태라고봅니다. 총체적으로전략을재점검하여체계화시키고전방위적인노력을경주함으로써우리가얻고자하는권익을가급적빨리달성시킬수있도록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에우리회가참여하여건축관련전문엔지니어링분야의직발주및분리발주가공공분야용역부터수행될수있도록하는노력과우리전문분야인구조설계및구조감리등이보장될수있는법개정노력을수행하고있으며저또한의원입법이추진될수있도록별도의노력을지속하고있습니다.

상대방을설득하고, 납득시킴으로써적군이아닌아군으로써의타협과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둘째, 보다많은회원의동참하는회가되도록하겠습니다.

우리회750여명의회원모두한분한분이소중합니다. 어느누구도소홀함이없이참여토록함으로써모두가우리회를걱정하며앞날을같이이끌어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셋째, 적정용역대가를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요즘각종VE등을통해구조기술사들의업역이증대하고있으나, 원설계자의설계배경이해없이불필요한지적과비방을함으로써원설계자의용역자체가무효화됨은물론회원상호간에신뢰를상실케하는사례들이보고되고있어이에대한지침마련은물론대형구조설계사간에가격경쟁으로용역보수대가가지켜지고있지못하다는우려가팽배함으로주요구조기술사사무소의제값받기운동이활발히전개되도록특별위원회구성및제제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최근우리회와상호협력교류를맺은영국구조기술사회는총설계비의25%를구조설계비로받고있다함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상당히크다고생각됩니다.

넷째, 우리회의기술발전을위한교육강화에힘쓰겠습니다.

김종호우리회회장
(주)창 · 민우구조건설탄트대표

기술세미나개최및실무자를위한예제집발행사업을추진하고관련학회와산업계등과도유대를강화함으로써우리들모두의기술실력발전및우리회의입지가견고하게되도록하겠습니다.

다섯째, 건축구조기술사란직업인으로써사회에봉사하는기회를갖고그를통한우리회의홍보와자긍심이생기게하겠습니다.

많은우리회원들이각지역의심의위원으로참여할수있도록함과동시에국가소유의공공시설물에대한무료안전점검등에참여함으써우리회를사회에알리는기회가늘도록함과동시에우리건축구조기술사란직업이우리사회에꼭필요한존재임을각인시키도록하겠습니다.

여섯째, 각지회와본회가동일한네트워크를갖는일사불란한회가되도록하여본회와지회가전국적으로한목소리를내는회가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회원여러분의의견을항상경청하고운영에반영함으로써우리회를밝고신뢰를주며원칙이통하는열린마당의장으로만드는데헌신하겠습니다.

그간전임의여러선배님들께서황무지를개간하셨다면저는괭이질하여자갈들을계속골라내면서옥토를만들어서조그만결실이라도맺어질수있는씨앗을뿌려보겠습니다. 이씨앗이결실을맺으면향후에는더좋은열매를얻을수있다는확신을많은후배여러분께심어줄수있지않을까생각하고있으며, 그좋은열매를얻기위한씨앗의준비및수확은의당후배여러분들의몫이아닐까생각합니다.